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Vernacular Textbooks of
Korean and French Elementary School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의 숙

2009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Vernacular Textbooks of
Korean and French Elementary School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의 숙

2009년 8월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Vernacular Textbooks of
Korean and French Elementary Schools

지도교수 이 주 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의 숙

2009년 5월

고의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6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9
1. 교과서관	9
2.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배경	11
3. 교과서 단원의 구성	17
4. 기초 문식성 교육의 개념 및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	20
III.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24
1. 교과서의 구성	24
2. 단원의 구성 체제	25
3.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입문기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37
IV. 결론 및 시사점	50
참고 문헌	54

표 목 차

<표 I-1> 선행 연구 문헌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 비교	3
<표 II-1> 항목별 교과서관 비교	10
<표 II-2> 교과서 발행제 유형	12
<표 II-3>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의 각 영역별 성취기준	14
<표 II-4> 제2주기 기초 학습 말에 습득되어야 할 능력	16
<표 III-1> 1학년 1학기 한국 교과서의 단원별 언어 사용 목적	26
<표 III-2>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구성 원리	27
<표 III-3> 한국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27
<표 III-4>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	38
<표 III-5>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	39
<표 III-6> 프랑스의 초등학교 시간표(주26시간)	41
<표 III-7> 문자 해득을 위한 『읽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43
<표 III-8> 문자 해득을 위한 『쓰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46
<표 III-9>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의 기초문식성 전개양상	48

그림 목 차

[그림 II-1] 프랑스 국어과 영역 구분	15
[그림 III-1]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단원 구성 체제	29
[그림 III-2]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에피소드’	30
[그림 III-3]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언어의 구조’	31
[그림 III-4]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어휘’ ..	32
[그림 III-5]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문자’ ..	33
[그림 III-6]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말하기 · 쓰기 표현’	34
[그림 III-7]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총정리-놀이’	35

국문 초록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고 의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를 단원의 체제를 중심으로 구성 및 전개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원을 조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인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 및 기본 조건들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이해와 더불어 두 나라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국어 교과서의 구성 형태도 단원 구성 체제의 비교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단원 구성 체제의 비교에서는, 기본적인 단원 구성 및 전개 방식과 함께 단원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교과서의 기능 및 국어 교과서의 요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비교 가능 한 여러 준거 중, 기초 문식성 교육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고 있다.

비교 대상은 개정교육과정에 의하여 발행된 1학년 국어교과서(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와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 교과서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비교 분석학에 근거한 문헌 연구로 진행되었다.

두 나라의 언어 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기본 전제로 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의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발달특성이 '통합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토

대로 할 때, 자국어 교과서는 통합되어 개발되어야 더욱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과정이 주기별로 구성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성도 유치원과정과의 통합, 주기별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내용에서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내용이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마다 국어교과의 영역별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영역별 통합은 교과서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기초 문식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초 문식성 내용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비중을 더해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에 교육내용은 시간과 내용에 있어 더욱 보강할 필요가 느껴진다. 글과 말이 아이들의 삶속에서 더욱 풍부해지도록 하는 기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요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프랑스의 교과서내용을 보면 자국의 문학작품을 교과서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자국어의 특성이 잘 드러난 문학작품을 교과서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은 자국어 교육에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어느 때보다 텍스트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이 교과서에서 더욱 좋은 질과 양을 담보할 때, 교과서의 내용도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교과서의 편찬, 발행제도는 점차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제 방식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다고 지적되어왔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는 보다 교육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주요어 : 국어 교과서, 모국어, 비교, 한국, 프랑스, 통합, 단원 구성, 기초문식성, 교과서의 편찬 발행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서는 교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교과서에는 교육이념과 목적이 들어 있고, 각 교과목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선정·조직하고 제시한 내용 제공서이며 해설서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교과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또한 선정·조직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안내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교과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학교의 수업현장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결정에 교과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과서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그 중요성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교과서 단위구성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찾아보는 연구는 전체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개발 보급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의 단위구성과 체제를 프랑스의 1학년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입문기 아동들의 ‘기초 문식성’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전개 방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교하여 기초 모국어교육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나라마다 언어의 특징과 교과서에 대한 관점, 모국어교육을 바라보는 역사적 배경 등은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도 교

과서의 체제와 단원 구성 및 전개 방식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의 교과서가 더 나은 수업교재로 활용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 사랑과 모국어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모국어 교육과 교과서와의 연계 및 기초 문식성에 대한 비중과 전개 방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대상의 설정

우리나라의 국어교과서와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로 우선 대상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너무 광범위한 대상 중에서 우선, 최근에 개정된 2007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보급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와 프랑스의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토론 속에 출판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09년 초등 1학년 국어 교과서는 가장 최근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그 선정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를 사랑하고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1학년 교과서 중에서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교과서는 프랑스 2주기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로서 좋은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이 구현되어 있고 그 교육과정에는 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들어 있다고 판단된다. 1학년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전개 방식을 비교해 보고 학교교육의 입문시기인 1학년에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나. 교과서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의 설정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의 타당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공통된 요소 및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프랑스의 교과서 비교 연구를 위해 교과서 비교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 준거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았으며, 선행 연구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에 연구는 최근에 와서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외국 교과서와의 교과서 단원 체제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물은 많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 교과서와의 비교 연구 논문 및 자료는 드물었으며 더욱이 초등학교 교과서 비교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표 I -1> 선행 연구 문헌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 비교

선행 연구 문헌	비교 분석의 준거
이주섭(2006), 외국초등국어과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	자국어교육 관련 동향 및 특징, 교과서 발행체도와 특징, 교과서의 구성, 전체 대단원의 구조, 전개 방식
김지영(2004),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교과서 비교연구	프랑스의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 비교
이용숙 외(1995), 국어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와 내용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교과서 정책 및 내용 구성 방식 비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학습활동의 유형
김영미(2007),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교육과정비교,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 교과서체제, 단원구성체제 비교
정인석(2003),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	학생활동중심, 과정 중심, 학습 동기 유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들을 살펴보면,

이주섭(2006)은 자국어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교육 동향과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제도를 비교하였으며 교육적 배경을 토대로 실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교과서의 구성요소와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각 나라 교과서이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기초문식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였다.

프랑스와의 교과서 비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로, 김지영(2004)은 우리나라 문학 교육과정과 비교적 가장 유사하면서도, 프랑스의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이 잘 반영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의 교과서 비교에서 양국의 교과서 비교 내용을 병렬적으로 기술하여 설명하였으나 연구의 목적을 프랑스의 우수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지 못한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용숙 외(1995)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국제 비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교과서의 체제 분석틀을 점검한 후, 프랑스 · 미국 · 일본 · 독일 ·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관계,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및 학습 활동의 유형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교과 체제 연구이다 보니 프랑스의 자국어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하고 있을 뿐 집중적인 내용 체제나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인석(2003)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영재용 국어 교과서 시안을 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하여, 학생활동중심, 과정 중심, 학습 동기 유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단원 구성 체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비교 분석의 준거로 설정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하였으며, 세 가지의 비교 분석 준거별로 단원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러나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단원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김영미(2007)는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외적체제와 단원 구성체제 교과서 체제를 상세히 비교 분석한 것으로 비교 분석의 준거를 마련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으나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비교 틀을 살펴보면 교과서 비교의 준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 교과서 외적 체제, 단원 구성 체제까지 다양하게 비교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적 체제는 교과서 체계(system)의 문제로 교수·학습 내용을 조직, 전개하는 구성방식에 대한 것이고, 외적 체제는 교과서의 판형이나 색도, 글자 크기와 모양, 여백처리, 지질, 삽화의 배치 등 교과서의 외형 및 편집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외적 체제는 심리학이나 출판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단원의 구성 방식 및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적 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하느냐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외국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와 비교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교과서가 개정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원의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개정된 한국 교과서와 프랑스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원을 조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¹⁾인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 및 기본 조건들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이해와 더불어 두 나라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국어 교과서의 구성 형태도 단원 구성 체제의 비교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단원 구성 체제의 비교에서는, 기본적인 단원 구성 및 전개 방식과 함께 단원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교과서의 기능 및 국어 교과서의 요건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교과서 개발 시기의 학문적 경향,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 교사의 교과서 활용에 대한 관점 등의 요인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부분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1, 2학년 한 학기 교과서만이 편찬된 현 시점에서 비교 가능한 여러 준거 중, 기초 문식성 교육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 교과서의 구성, 단원 구성 체제, 기초 문식성 교육을 비교 분석 기준으로 삼아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해 국어과 교과서 개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앞서 살펴 본 연구 대상 및 비교 분석의 준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한 고찰로, 먼저 1절에서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교과서를 개발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프랑스 각 나라의 교과서 발행 및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는데 기본 인식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여러 방식과 각 방식들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단원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단원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한글의 초기 문자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이론적 탐구를 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과 프랑스 교과서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1절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비교, 2절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단원 구성 체제에서는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전개 방식, 단원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3절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을 프랑스 교과서와 비교 분석 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비교 교육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이다. 비교 교육학은 비교 방

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제도 및 교육 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사회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교육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학문이다.

비교 연구는 비교하려는 대상이 매우 유사한 단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비교’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볼 때 사물 또는 현상의 관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비교 대상이 유사성을 띠지 않을 때 비교의 가치가 있다. 비교의 대상이 전부 일치하거나 전혀 다르면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교재의 특성상 일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편찬되며, 단원을 하나의 구성 단위로 하여 교과서가 구성된다. 또한 기초 문식성 교육은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문기인 1학년 교육 내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세부 제도 및 구성 요소, 조직 및 전개 방식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

비교 연구는 순수한 자료의 수집 단계인 기술, 사회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교육적 사실의 분석 단계인 설명, 수집된 자료를 예비적으로 대조하여 자료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병치, 비교의 목적으로 각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와 사실을 최종적으로 융합하는 단계인 비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교 단계에서는 균형과 예증이 활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균형 비교 방법을 적용한다.

균형 비교는 특정 연구 주제나 연구의 부분을 나라별로 차례로 다루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맞물리게 하여 연구 중에 있는 국가들 사이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²⁾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행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교과서에서 교과서의 구성 및 단원구성체제, 1학년 교과서속의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과 전

2) 정영선(2005), “한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개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비교 분석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교과서 단원 구성을 넘어선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단지,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의 학습 목표 및 성취기준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교과서 비교 분석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여러 교과서 중에서 특별히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을 선택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칫 편협한 비교가 될 수 있겠으나, 다양한 프랑스의 교과서를 구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교과서 선택을 한 권으로 한정하여 비교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2009년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1학년 입문기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기초 문식성’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교과서관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과서를 집필, 편찬, 발행하는 면에서나 실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나 모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해석 자료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를 ‘열린 교과서관’이라고, 그리고 후자를 ‘닫힌 교과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³⁾ 그런데 열린 교과서관과 닫힌 교과서관 중 어느 시각에서 교과서를 보는가 하는 것은 교과서의 편찬 및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닫힌 교과서관에서는 교과서는 종교의 성전(聖典)과 같이 신성시 되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이나 자료는 절대적인 교수-학습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마치 중세 이전에 신부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그 분야에 전문적 배경과 식견을 가진 교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런 교과서관의 교실 수업은 교사가 교과서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해설해 주는 주입식 수업이 되기 쉽고, 학생은 그런 교사의 설명을 절대 신봉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여 수동적인 학습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닫힌 교과서관은 교과서를 풀이한 참고서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열린 교과서관에서는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그것이 실제로 전개되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교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진술도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실현시키는 중간 매개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의 자료를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3) 노명완 외(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해설해 주기 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극적 자료로 생각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

다음 <표 II-1>는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을 여러 측면에서 대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표 II-1> 항목별 교과서관 비교

	닫힌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
지식	· 고정 불변의 확인 가능한 대상	· 개인이 구성·재구성해야할 대상
교육 목표	· 교육의 효율성, 균질성, 규범성 중시	· 교육의 창의성, 자율성, 전이성 중시
교과서	· 표준적인 단일 교과서 지향 · 완벽하고 이상적인 언어 자료 중시	· 교과서는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 · 불완전한 자료라도 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으면 수용
교수/학습	· 모방과 반복 학습 강조 · 내용 설명 및 분석 중심의 수업 활동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학습 강조 · 학습자 중심 수업 또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중심 수업
평가	· 교사 중심 평가 · 결과 중심 평가 · 단순한 형태(객관식, 주관식)	· 교사, 학습자, 동료 참여 · 과정 중심 평가 · 다양한 형태(객관식, 주관식, 관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저널 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편찬하는데 기본 정신이 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에서는 닫힌 교과서관을 견지하면서 지식교육에 치중해 왔다. 소위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어학 지식과 국문학 지식을 국어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던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어교육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5차와 제6차 그리고 제7차에 이르러서 국어교육에서의 교과서관이 열린 교과서관으로 크게 바뀌었다. 비록 국어 교과서가 아직까지도 제1종인 국정교과서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국어 교육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언어활동에 중심을 두면서, 지식이나 이론의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율적인 언어활동을 중요시하고, 교과서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자료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강조하는 국어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⁴⁾

2.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배경

가. 교과서 제도 및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교과서 편찬 제도와 정책은 각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서 편찬 제도는 교과서 편찬의 기준은 국가의 관여 방식과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⁵⁾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하는 교과서 발행제도로 편찬 계획, 연구 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철저히 관장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몇몇 국가에서 모국어나 국민교육과 같은 핵심 교과목이나 수요가 적어 경쟁성이 없는 도서 등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질, 형태, 공급 등을 국가에서 관장하고 저작권도 국가가 가지며, 학교나 교사는 교과서 선택의 권한이 없다.

검정제는 교과서의 저작에 국가가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국정제와 같으나 교과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며, 검정 결과 교과용 도서로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것도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정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일반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에서는 검정 기준에 통과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용 여부에만 관여하는 인정제에 비하여 국가의 관여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정제는 국가의 관여 폭이 가장 낮은 형태의 교과서 제도로 한국에서는 교과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교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충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만 허락하고 있다. 인정제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로 미국의 몇몇 주와 프랑스, 뉴질랜드의 몇몇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유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대하여 일절 관여하지

4) 노명완 외(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 김영미(2007),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 또한 지방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된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한국의 국어교과서 정책은 국정제를 따르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를 국가가 일정 관여하는 검인정제로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발행제를 선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과서 채택방식은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교사들이 선정한다. 각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를 하여 대부분 공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할 수 있는 요인 중에는 조직적인 지방분권 교육을 들 수 있다. 국가교육개발원(INRP) 아래에 국가교육자료센터(CNDP)를 두고 있으며, 약 150 지방에 지역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난지와 오지를 위해서 별도로 100여 군데가 넘는 지역의 안테나를 두어 지역학교 교사들의 연수 및 교육연구 활동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방분권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표 II-2> 교과서 발행제 유형

구분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발행자	국가, 주	출판사, 저작자	출판사, 저작자	출판사, 저작자
교과서 저작근거	국가, 주 교육과정	국가, 주교육과정+ 별도의 교과서기준	국가, 주교육과정+ 별도의 교과서기준	국가, 주교육과정+ 학문적 , 교육적 필요
발행절차	저작→심의→발행	저작→검정→발행	저작→발행→인정	저작→발행→사용
교과서 인정자	국가, 주	국가, 주+ 별도의 교육기관	교육구+ 학교+ 교 사	학교+ 교사
교과서 채택자	국가, 주	학교	학교+ 교사	학교+ 교사

나.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모국어 교육의 목표

1) 개정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의 영역별 성취기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에 적용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단일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의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선정한 교육내용이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 성취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교육활동은 각 영역의 ‘실제’, ‘지식’, ‘기능’, ‘맥락’ 범주의 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내용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은 ‘국어사용의 실제’, ‘지식’, ‘탐구’, ‘맥락’이라는 범주 명을 사용하여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은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이라는 범주 명을 사용하여 내용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내용도 학습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텍스트를 ‘담화(글/작품/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라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성취기준도 실제의 영역을 고려하여 정보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표현 항목이 고루 반영되도록 하였다. 성취기준의 내용 구성은 ‘학습요소+활동’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의 각 영역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⁶⁾

6)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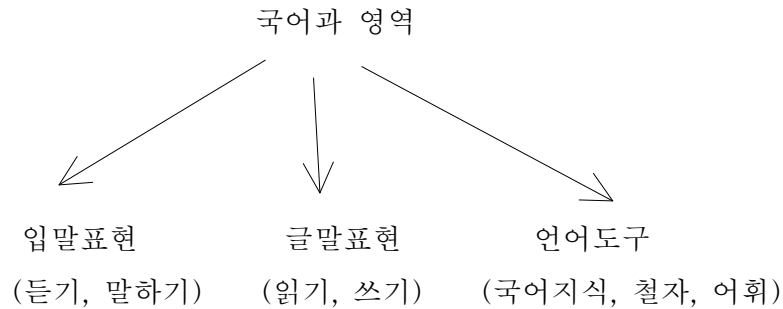
<표 II-3>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의 각 영역별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듣기	(1)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여 듣고 흉내 낸다.
	(2) 다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듣는다.
	(3)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시, 노래를 듣는다.
	(4)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말하기	(1)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2) 일상 생활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한다.
	(3)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하면서 대화한다.
	(4)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다.
읽기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3)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4)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쓰기	(1) 글씨를 바르게 쓴다.
	(2)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쓴다.
	(3)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4)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하여 그림일기를 쓴다.
문법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안다.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문학	(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3) 그림 동화 속의 그림을 이야기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2) 프랑스의 제2주기 기초 학습 단계의 목표

한국의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내용체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프랑스의 교육과정 내

용체계는 일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프랑스의 영역 구분에 있어 한국의 영역 구분과 다르다⁷⁾



[그림 II-1] 프랑스 국어과 영역 구분

예를 들어, 국어과 영역 중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하여 ‘입말표현’,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여 ‘글말표현’, 국어지식을 ‘언어도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것이다. 이외에 국어지식 뿐만 아니라 철자와 어휘를 ‘언어도구’에서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주기별’ 교육과정이다. 그 중에서 제2주기(유치원 마지막 학년, 초등 1,2학년) 기초 학습 단계에서의 국어 학습의 목표는 아동들이 글말을 접하면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데 둔다. 유치원 단계에서 시작한 환기적 묘사(지나간 일, 앞으로 할 일, 상상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기)능력의 습득을 계속한다. 아동용의 입말과 글말로 된 문학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히는 것이 중요하며, 또 여러 학습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은 유 초등 전 단계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계속 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특히 유치원 마지막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있을 읽기와 쓰기의 준

7) 김영미(2007).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비학습으로, 국어의 음소를 듣고 식별할 수 있고 글자를 보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이 학습은 초등 1학년까지 계속한다. 그리하여 유치원 단계에서 이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의 재학습을 초등교사는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는 언제나 보충 관계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두 학습 활동을 동시에 하도록 해야 서로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학급에서 이 두 활동이 규칙적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루어지도록 수업계획을 짜야 한다. 또한 쓰기 활동은 읽기 학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학습 활동에 제2주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영역의 체계적인 학습과 도서실을 통해 교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 문학 작품, 아동들에게 알맞은 읽기 자료나 전산 자료 등은 말하기와 읽기 및 쓰기에 의미를 주는 문화적 토양이 되고 있다. 제2주기 기초 학습 말에 습득되어야 할 능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8)

<표 II-4> 제2주기 기초 학습 말에 습득되어야 할 능력

영역	습득되어야할 능력
입말 언어의 습득	의사소통하기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타인의 말 경청하기, 설명을 요구하기, 교사가 주도하는 토론의 방향을 존중하기 · 대화나 토론에서 의사 교환의 범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반응을 드러내기 · 외운 글을 입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한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해석 더하기
	회상 언어의 습득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한 사건, 이야기, 정보, 관찰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옮겨 말하기 · 한 동화 앨범의 삽화를 보고 그것이 표현하는 이미지나 상화 속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 삽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 학년 중 외운(10개의)시나 짧은 글을 한 편 말하면서 설명하기

8)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4), 《외국의 국어교육과정 I, II》, 나라말 출판사.

영역	습득되어야할 능력
읽기와 쓰기	이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이와 학생들의 문화에 맞는 한 문항글이나 자료글을 읽고 분명히 드러나는 정보를 이해하기 · 인쇄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한 자료글을 통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 찾아내기 · 단락의 강세와 문의 어조 곡선을 정확히 발음하면서 짧은 글을 소리내어 읽기
	낱말의 파악 -다음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 쓰기에서의 알파벳 체계 · 음소와 음운 사이의 규칙적인 일치 · 규칙적인 낱말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글쓰기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명한 지시문을 따르고 통사와 어휘 문제를 혼자서 정확히 해결하면서 적어도 다섯줄의 글쓰기
	쓰기와 철자법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용되는 짧은 낱말의 대부분의 철자를 쓸 수 있다. · 음운 특성을 지키면서 낱말을 쓸 수 있다. · 서너 줄의 글을 한 낱말씩 알아볼 수 있는 필기체로 틀리지 않게 배길 수 있다. · 문의 끝맺음을 알리는 표시(대문자와 마침표)를 정확히 쓸 수 있고 쉼표 쓰기를 시작한다.

3. 교과서 단원의 구성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 체계, 즉 교과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의 기능 및 배치에 대한 것으로, 단원 구성 방식과 단원 전개 방식을 말한다.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효과성과 학습자의 흥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단원 구성 방식은 국어과 교육의 중핵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과서에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국어과 교육의 중핵적 지도 내용을 지식으로 볼 것인지, 기능으로 볼 것인지, 가치와 태도로 볼 것인지 하는 관점에 따라 선호하는 단원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단원 전개 방식을 알아보고, 각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단원 구성 방식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는 ① 제재 중심, ② 목표 중심, ③ 문종(文種)중심, ④ 주제 중심의 구성 방식이 있다. 첫째, 제재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중심 제재를 하나 제시하고 제재 내용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제재 내용에 대한 학습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독해 중심의 수업을 조장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국어사용 경험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단원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에 기여하도록 구성된다. 단원의 도입부, 제재와 학습 활동, 평가와 정리 등 단원 구성요소가 학습 목표와 관련된다. 이 때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므로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방식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사용 기능 영역의 여러 교육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사용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단조로운 활동이 반복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각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목표가 언어 기능을 세분화한 것으로 언어 경험의 실제성과 총체성을 제공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다.

셋째, 문종중심 구성방식은 한 단원을 묶는 기제와 단원과 단원을 구분하는 기제를 글의 종류인 문종에 따르는 방식이다. 단원은 각 문종에 속하는

제재로 구성되며, 학습 활동은 글 내용에 대한 문제와 문종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된다. 문종 중심 구성 방식은 문종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독해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중심 구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문종의 강조는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습을 유도하되, 독해 위주의 수업을 조장하여 국어사용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주제 중심 단위 구성 방식은 말 그대로 ‘주제’가 단위의 중심점을 이루는 방식이다. 이 때 주제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며 국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제 중심 단위 구성 방식은 언어 경험의 실제성과 총체성을 제공하는데 용이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주제의 선정과 배열에 있어서 위계성의 확보 문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주제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단위의 중심축인 주제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 상충되어 수업이 주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가능성도 있다.⁹⁾

단위를 묶고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언어 자료를 어떻게 선정·배열하여 교수·학습에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위에서 살펴 본 네 가지의 단위 구성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방식 별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고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나. 단위 전개 방식

단위 전개 방식은 교과서의 개별 단위 내에서 각 구성 요소들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들을 선정하여 어떻게 배열하고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구조화시키는지에 따라 학습활동을 달라질 수 있으며 학습의 효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국어교과서의 단위 전개방식의 대표적인 모형은 노명완의 3단계 모형, 정태범의 모형, 이재승의 과정중

9) 노명완 외(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심쓰기 단원의 4가지 모형이 있다.

노명완의 3단계 모형은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의 단계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의 이해와 학습 동기 유발을, 전개 단계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학습 과정의 안내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정리 및 평가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정리해주고, 정리한 내용을 새로운 제재에 적용하여 학습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4. 기초문식성 교육의 개념 및 한글의 초기 문자지도 방법

가. 기초문식성 교육의 개념

기초문식성은 초기 읽기 수준과 초기 쓰기 수준의 문식성을 의미한다.¹⁰⁾ 초기 읽기는 ‘기호의 음성화와 의미화’ 즉,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여 음가를 확인하여 해독하고,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초기 쓰기는 ‘음성과 의미의 문자화’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초기 읽기는 말소리와 글자를 연결하여 음가를 확인하여 해독하고,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한글 해독과 내용 파악 수준을 포함한다. 이때 내용 파악 수준이란 간단한 글을 읽고 사실적 수준의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초기 쓰기 또한 말소리와 글자를 연결하여 글자로 쓰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서 글씨쓰기와 글쓰기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글쓰기 수준이란 필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요약하면 기초문식성이란 초기 읽기와 초기 쓰기 수준을 말하며, 글을 읽

10) 이경화(2006),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문식성 지도 실태와 인식조사”,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고 쓸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기초적인 능력’이란 한글 해독과 글씨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초적인 의미구성’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나.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¹¹⁾

한글을 배우는 입문기 학생들에게 문자를 지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음 중심의 자모식, 음절식 지도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중심의 단어식, 문장식 지도방법이다. 4차 교육과정 이후 7차 교육과정까지는 두 가지 지도방법을 절충하는 절충식 지도법이 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미 중심 지도법을 입문기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병용하는 방법으로 균형적 지도법이 대두되고 있다.

가. 발음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방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 변별 훈련, 자음과 모음의 쓰기 연습, 자모의 음가 학습,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글자(또는 음절)를 이룬다는 문자(또는 음절)구성 원리 학습이 문자 지도의 중심을 이룬다. 이 방법은 인쇄된 문자를 음성 언어로 해독하는 과정(시각적 언어기호→청각적 언어 기호)에서 철자(문자)와 음운(소리)의 대응 관계를 중요시 한다.

나. 의미 중심 지도 방법

의미 중심 방법은 단어 또는 문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제시하면서, 그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 이해 학습이 문자 지도의 중심을 이룬다. 이 방법은 제한된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눈에 익히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하며, 그림을 많이 제시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11) ‘최미숙 외(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 교수학습 연구소 편(2006),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노명완·이차숙(2006), 《문식성 연구》, 박이정’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다. 절충식 지도 방법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제5차, 제6차, 제7차 국어 교과서에는 입문기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의미 중심의 단어식, 문장식 지도 방법에서 시작하여 문자에 조금 익숙해질 때에 자모식 지도를 병행하는 ‘절충식’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절충식 지도에는 지도시기, 지도순서, 지도 비중에 대한 균형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두 가지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연결하는데 그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입문기 문자 지도 방법이 문자 습득의 한 측면만을 설명한다는 점, 절충식 방법이 각 지도 방법의 단순 나열에 그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균형적 지도법이 대두되었다. 균형적 지도법은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미 중심 지도법을 입문기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병용하는 방법이다. 균형적 지도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중심 지도법과 발음 중심 지도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입문기 문자 지도에서는 의미 중심 지도법을 우선 지도하느냐, 발음 중심 지도법을 우선으로 지도하느냐보다는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은 경험과 흥미를 고려한 친숙한 단어 학습, 때로는 글자와 음절의 대응 전략, 기본 음절표를 통한 결합 원리의 이해 등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미 중심의 자료 제시와 발음 중심의 자료 제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글은 발음 중심의 방법으로서 자질적 특성에 의한 음가 학습으로 시작해서 가르칠 수 있다. 또 한글은 문장과 같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의 분석도 가능한 문자 체계이다. 한글 습득에는 이 두 과정이 모두 존재하므로 균형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흥미와 인위적 학습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자 습득은 문자라는 기호를 학습하기 위하여 학생의 삶과 언어가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흥미 있는 학습 상황이 제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문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내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명시적이고 표준적인 평가와 학습자의 자기 평가 및 관찰과 같은 암시적 평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간접적이 평가도 필요하다.

다섯째, 기초 문식성과 고등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입문기 문자 언어 습득은 부호를 풀고 이미 알고 있는 의미와 연결짓는 데 있다. 입문기 문자 언어 습득은 기초 문식성 단계의 읽기지만 고등 문식성과 연계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1. 교과서의 구성

각 나라의 자국어는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특징, 언어 교육의 강조점에 따라 교과서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구성 형태 및 교과서 구성이 자국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 한국 교과서의 구성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교과서로 분책되어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독해 중심의 국어 교육에서 벗어나고 언어 수행 기능을 총체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종래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듣기·말하기¹²⁾』, 『읽기』, 『쓰기』 (또는 『듣기·말하기·쓰기』, 『읽기』의 두 권)으로 분책되었다. 교사를 위한 교사용 지도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배부되며, 영역별 교과서와 달리 『국어 교사용 지도서』로 통합되어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말하기』 교과를 위한 보조 자료로 CD 자료가 함께 개발되었다. 기존의 녹음자료(Tape)에서 발전된 형태로 고안된 CD 자료는, ‘다양한 듣기 자료 활용을 통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신장’, ‘문자 언어에 의존하는 음성 언어 지도의 한계점 보완’, ‘교사용 지도서와 연계하여 수업 목표 도달도를 높이기 위한 밀도 높은 학습 전개’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자료 외에 학습의 도입부터 정리까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ICT 과정안을 구성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이미지나 동영상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녹음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듣거나 반복하

12) 본래 5차 교육과정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에는 분책 된 교과서 중 하나가 『말하기·듣기』였으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기에서는 『듣기·말하기』로 영역명의 제시 순서가 바뀌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듣기·말하기』로 제시한다.

여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 프랑스 교과서의 구성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초등학교 1학년<Justine mes amis>은 주교재인 읽기 교과서 1,2권 총 2권, 워크북 형태의 연습장1,2권 총 2권, 글씨 교재 1권으로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교재인 읽기 교재, <Justine mes amis >에는 실제 텍스트를 읽기 매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할 에피소드(텍스트)를 중심으로 각 시퀀스에는 ‘언어의 구조, 문자, 어휘, 음성코드, 말하기와 쓰기 표현’의 4개의 영역이 같은 구조를 이루며 반복되고 있다.

워크북에는 주교재의 ‘말하기와 쓰기 표현’영역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마다 개별화,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로 구성된 글자 교재는 어떤 읽기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문맥을 가정 혹은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단원의 구성 체제

국어교과서는 문서로서의 국어 교육과정과 실천된 교육과정으로서의 국어 수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실천된 교육과정이다. 즉,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다. 교과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전체 단원 구성 및 개별 단원 전개방식

1) 단원 구성의 기본 원리

① 한국 교과서 단원 구성의 기본 원리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 사용의 실제(목적)를 축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의 4개의 언어 사용 목적을 각 단원 구성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이에 따른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단원별 언어 사용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1학년 1학기 한국 교과서의 단원별 언어 사용 목적

단원명	언어 사용 목적
1. 배우는 기쁨	정보 전달
2. 이렇게 생각해요	설득
3. 마음을 나누며	사회적 상호작용
4. 아, 재미있구나!	정서 표현
5. 생각을 펼쳐요	설득
6. 느낌이 솔솔	정서 표현

언어 사용 목적에 따른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단원의 초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지식 학습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목표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국어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부적인 목표를 분절적으로 학습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국어 능력으로 종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다. 세부 목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구성으로 인하여 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¹³⁾

② <Justine mes amis>의 단원 구성의 기본 원리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초등학교 1학년<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은 단원의 기본 에피소드(텍스트, 읽기 매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리에 의하여 반복 구성된다.

13) 최미숙 외(2009), <국어교육의 이해>,사회평론.

<표 III-2> <Justine mes amis , 퀴스틴과 친구들>의 구성 원리

원리	구성 내용
· 언어의 구조	· 코드, 문장과 낱말들에 대한 학습활동
· 어휘	· 보충 텍스트와 연습문제
· 문자, 음성코드 (code grapho-phonétique)	· 음소, 문자소, 낱말, 문자들
· 말하기와 쓰기 표현	· 작문, 읽기 매체에 대한 질문, 연습장 연결

2) 단원 전개 방식

① 한국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이전의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형식을 취하여 하나의 대단원 안에 두 개의 소단원을 두었었지만, 소단원간의 단절 문제와 같은 비판에 따라 하나의 단원을 단위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변화되었다. 단원의 앞쪽에서는 주로 개별 지식이나 기능, 맥락에 대한 이해 학습을 하고 뒤쪽에서 적용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차시에서는 이해 학습을 하고 2차시에는 앞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게 구성하거나 1~2차시에서는 이해학습, 3~4차시에서는 적용 학습의 관계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말 그대로 기본 원리이고, 학습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단원에 따라서는 1차시에서는 지식학습, 2차시에서는 기능학습, 3차시에서는 맥락 학습의 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구성 할 수도 있다.¹⁴⁾

단원 전개를 위한 구성 체제의 기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III-3> 한국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듣기·말하기』 / 『쓰기』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적용 학습		정리
	이해 학습		적용 학습		놀이터
·단원명	·차시 목표	·차시 목표	·차시 목표	·정리	사고 학습
·문제 상황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적용 학습 활동	·평가	
·단원 학습 목표				·실천	
1쪽	2쪽	짝수(2, 4쪽)	홀수(3, 5쪽)	1쪽	홀수(1쪽)

14) 초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2009),

『읽기』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적용 학습		정리	놀이터	
	이해 학습		적용 학습				
·단원명 ·문제 상황 ·단원 학습 목표	·차시 목표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차시 목표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차시 목표 ·적용 학습 활동		·정리 ·평가 ·실천	사고 학습	
1쪽	2쪽	짝수(4, 6, 8쪽)	홀수(9, 11, 13쪽)		1쪽	홀수(1쪽)	

② <Justine mes amis>의 단원 전개 방식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초등학교 1학년<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 읽기책의 단원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Justine entre au CP		8		
	quelques règles	vocabulaire	les sons	expression orale et écrite
Justine	Des lettres, un mot	Fille et garçon	[i]	10
Un beau cartable	Des espaces entre les mots	Le matériel de Justine	[r]	14
Mercredi	L'ordre des mots	Les jours de la semaine	[a]	18
Lire et écrire	La majuscule	Que fait-on à l'école ?	[l]	22
Justine et sa maman	Le point	Trop grande ou trop petite	[y]	26 Chansons : Grand ou petit, A. SYLVESTRE La croisade des enfants, J. HIGELIN
Justine et son papa	La virgule	La semaine de Papa	[p]	32 Les activités de la classe d'Oscar Écrire ton emploi du temps
Justine et Ballon	Les guillemets	Quel est ton animal préféré ?	[m]	38 Une fiche documentaire sur l'écureuil Écrire la fiche d'identité d'un animal
À l'école	Les accents	La classe de Justine	[u]	44 La classe d'Oscar
BILAN 1	Le jeu des syllabes			50

		<h2 style="text-align: center;">쥐스틴은 1학년이 되어</h2>		8
몇 가지 규칙		어휘들		말하기와 쓰기 표
쥐스틴	글자들, 낱말	여자아이와 남자	[i]	10
예쁜 가방	낱말들 사이의 공	쥐스틴의 물건	[k]	14
수요일	낱말들의 순서	요일들	[a]	18
읽기와 쓰기	대문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l]	22
쥐스틴과 엄마	마침표	너무 큰 또는 너무 작은	[y]	26
쥐스틴과 아빠	쉼표	아빠의 일주일	[p]	32
쥐스틴과 발롱	인용부호	좋아하는 동물은	[m]	8
학교에서	액센트	쥐스틴 반	[u]	44
총정리	음절 놀이			50



[그림Ⅲ-1]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단원 구성 체제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단원구성 방식은 하나의 담화를 주제로 하여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학습, 적용학습, 정리의 순서로 전개되는 반면, <Justine mes amis>의 구성은 하나의 텍스트(에피소드), 앞에서 제시된 예의 ‘쥐스틴은 1학년이 되어(Justine entre au cp)’의 주제로 작은 소주제의 단원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각 단원의 텍스트가 성취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Justine mes amis>은 하나의 텍스트를 근간으로 하여 교과서 전체가 통일되고 작은 소주제가 나누어져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단원의 구성요소와 그 내용

1) 도입부

① 한국 국어 교과서의 도입부

도입부분에서 삽화를 제시하고, 이 삽화와 관련하여 해당 단원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풀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②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도입부

실제 텍스트, ‘에피소드’라고 하는 글이 제시되며 이 글은 주로 동화나 문학작품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다. 삽화 또한 원화 그대로 실는다.



[그림Ⅲ-2]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에피소드’

2) 전개부

① 한국 국어 교과서의 전개부

‘이해학습’에서는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 전략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해

당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적용 학습’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체로 ‘이해학습’에서는 짧은 텍스트를 통하여 방법을 익히게 하고, ‘적용학습’에서는 좀 더 길면서 실제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②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전개부

프랑스 1학년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을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전개’의 단계를 학습목표를 실현하는 실제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단계로 보아, ‘언어의 구조’, ‘어휘’ 학습활동을 ‘전개’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가) 언어의 구조 (둘째 페이지, 코드, 문장들, 낱말들)

단원의 둘째 페이지에 정리되며 주로 코드, 문장과 낱말들에 대한 학습활동을 하게 된다.

코드
글말의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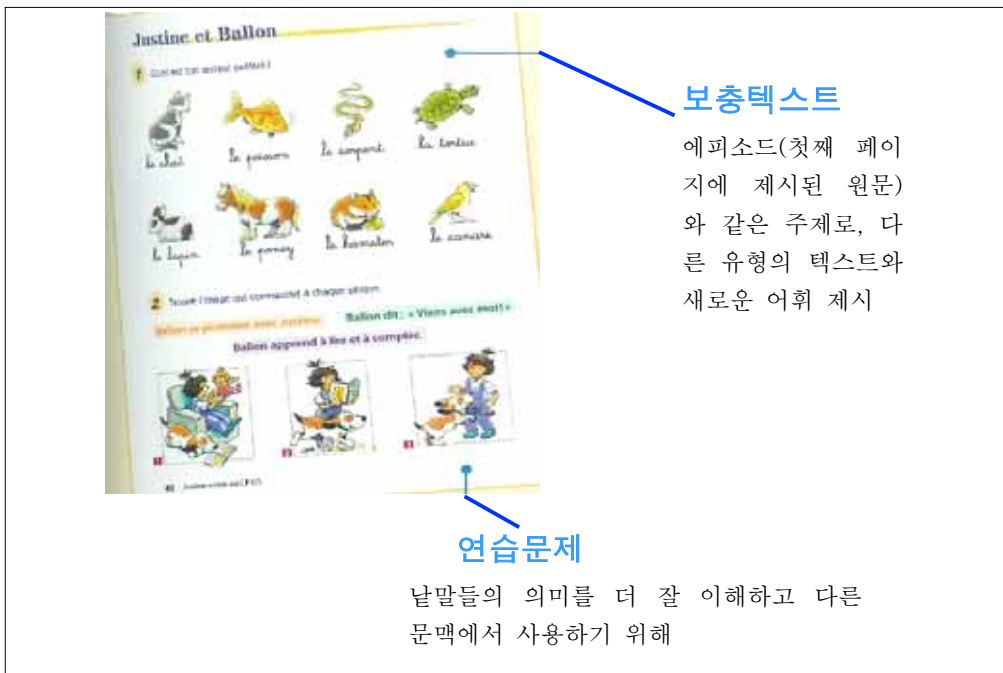
문장들
그림책에 나오는 낱말들을 이용하여 만드는 새로운 문장들

낱말들
문법유형에 따른 낱말의 분류. 연습장에서는 표의 형태로 미리 나누어 놓은 낱말들이 나온다. 글말의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

[그림Ⅲ-3]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언어의 구조’

나) 어휘(셋째 페이지, 보충 텍스트와 연습문제)

‘어휘’의 단계는 셋째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며 첫째 페이지에 제시되었던 에피소드(원문)과 같은 주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새로운 어휘가 제시되어 확장 반복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낱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문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한다.



[그림Ⅲ-4]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어휘’

3) 정리부

① 한국 국어 교과서의 정리부

정리학습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지 평가를 해 보며, 실천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실천 학습은 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해당 학습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학습 과제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학습 과제로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교사가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천

학습을 할 때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새롭게 구안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때,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며 이른바 능력별 학습이나 흥미별 학습 등의 선택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놀이터’는 단원의 끝 부분에 1쪽으로 구성하되, 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②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정리부

프랑스 교과서의 정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공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실천한다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교과서의 ‘문자’단계와 ‘말하기 쓰기 표현’단계를 설정하였다.

(가) 문자

‘문자’ 단계는 단원의 넷째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으며 음성코드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공부한 음을 다시 알아보고 서로 다른 철자끼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낱말들에 대한 확인을 한다. 더 확장된 낱말 학습을 확인하는 학습활동과 음절들을 결합하는 학습내용이 전개된다.

**음소(phonème)
/ 문자소(graphème)**
공부한 음(音) 그리고 서로 다른 철자의 참고 낱말들

낱말들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낱말들

음절들
음절들을 결합시키는 공부를 위해

[그림Ⅲ-5]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문자’

(나) 말하기 쓰기 표현

‘말하기 쓰기 표현’단계는 단원의 다섯 번째 페이지에 수록되며 다양한 읽기 매체를 접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읽기 자료가 제시되고 작문을 하고 연습장(학습 보조 자료)과 연결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림Ⅲ-6]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말하기·쓰기 표현’

(다) 놀이

총정리 부분으로 단원의 맨 마지막 쪽에 제시된다. 한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놀이 형태로 제시하고 학습함으로써 체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1학년 아동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고 듣고 쓰고 활동하는 통합적인 표현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Ⅲ-7]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총정리-놀이’

4) 학습 보조 자료

① 한국 국어 교과서의 학습 보조 자료

해당 교과서 끝 부분에는 ‘우리말 꾸러미’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말 꾸러미에는 해당 교과서 전체에 걸쳐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이나 교과서 전체에 걸쳐 두루 필요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단원에 산발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배치한 까닭은 교과서 개발이나 실제 운영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말 꾸러미 뒤쪽에 있는 ‘붙임’은 말 그대로 부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학습 활동을 기록해 두는 학습장이나 단원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날말카드나 붙임 딱지 등)을 첨부하여 교과서 활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②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학습 보조 자료

프랑스 1학년 교과서는 읽기 교과서와 연습장이 있다. 연습장은 교과서의 꼭 필요한 보조 자료로 고안되어 있다. 연습장은 의미, 코드, 쓰기 표현이라는 3가지

측에 따라, 학생마다 개인화,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연습장은 교과서의 구조를 엄격하게 따른다. 각 단원에 해당하는 연습문제 4쪽은 일주일 수업분량이다. 색깔로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이 연습문제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공부한 이야기의 의미에 대한 학습 제시하기(초록색 페이지)
- 불어의 각 음소와 그에 상응하는 문자소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분홍색 페이지)

교과서의 다섯째 쪽에 제시되어 있는 ‘말하기 쓰기 표현’ 단계의 쓰기 상황을 돕는 구실을 하며 총정리가 제시된다.

연습장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낱말들, 문장들, 텍스트에 대한 인식
- 이야기의 이해
- 텍스트에 나온 어휘의 재활용, 특히 학생이 일상생활과 취향에 따라 개인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게 될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반복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도입, 전개, 정리단계와 <Justine mes amis>의 단계별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 단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문학작품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은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는 학년별 성취기준에 따라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의 양이 많고, <Justine mes amis>의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몇 문장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입부분에 제시된 텍스트가 한국에서는 도입부분에만 한정되어 다시 이해학습, 정리학습에서는 다른 텍스트가 교육과정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반면, <Justine mes amis>에서는 단원 전체를 거의 통괄하고 있으며 보조교재의 텍스트도 주교재의 도입부에 제시된 텍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개’ 단계에서는 한국의 1학년 국어교과서가 제시된 학습목표를 지식, 기능, 맥락의 이해 적용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Justine mes amis>에서는 정해진 네가지의 원리(언어의 구조, 어휘, 문자·음성코드, 말하기와 쓰기 표현)에 의하여 반복, 확대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리’단계에서는 한국의 1학년 국어교과서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평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Justine mes amis>에서는 워크북과 연결하여 적용·정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학년 국어 교과서와 <Justine mes amis>은 공통적으로 단원의 마지막에 ‘놀이’ 부분을 넣어서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특성에 맞도록 배운 내용을 놀이를 통하여 학습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3.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입문기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 문명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식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초 문식성 함양은 주로 초등학교 입문기인 1학년 때 이루어지는 데, 기초 문식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어 학습은 물론, 타 교과 학습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기초문식성에서 뒤쳐지는 경우, 학습 부진 상태가 계속해서 심화되게 된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 기초 문식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영역에 담긴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은 『읽기』와 『쓰기』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으므로 1학년 『읽기』와 『쓰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의 교과서에서는 주교과서와 워크북, 글자 익히기 교재를 중심으로 기초 문식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충분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바로 전 단계인 유치원에서 기초문식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른 1학년 입문기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의 연계성을 살펴 본 후, 그 수준에 알맞은 학습 분량이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특정 교과서가 없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경우,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Ⅲ-4>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

내용	하위 내용	수준별 내용	
		I	II
읽기	읽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
		·여러 가지 맥락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에 관심 가지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추측하여 읽는다.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굵적거리를 즐긴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의 이름을 써본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에 관심을 가진다.	

<표Ⅲ-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치원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거나 읽어 보는 수준에서 읽기 학습이 전개되며, 자기 이름 쓰기 외에는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5>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

영역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읽기	(1)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낱자 알기 ·글자의 짜임 알기 ·변하는 소리에 주의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
	(2)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띄어 읽기의 방법 알기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띄어 읽기 ·방법을 달리하여 띄어 읽고 비교하기
쓰기	(1) 글씨를 바르게 쓴다.	·연필을 바르게 잡기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 ·낱자, 글자를 바르게 쓰기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
문법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안다.	·글자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기 ·한글 자모 정확하게 읽기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소리 내어 읽기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르기
	(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와 어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한글 자모,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기
	(3) 문장 부호의 이름과 쓰임을 안다.	·문장에 쓰인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 알기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의 쓰임에 맞게 문장 읽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면, 글을 처음 익히는 학생을 고려하여 연필잡기, 낱자, 낱말, 문장 쓰기, 한글 자모 익히기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명시되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 한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읽기』 6단원 중 3단원 18차시에 걸쳐 기초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문자 해득 시간은 2단원까지인 12차시에 불과하다. 『쓰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바르게 글자를 쓰기 위한 학습 분량은 3단원 12차시이며,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림 일기 쓰기 관련 학습 내용이 4단원 4차시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시간은 읽기 18차시, 쓰기 16차시로 모두 34차시로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 이 중 글을 읽고 쓰는 문자 해득을 위한 시간은 읽기 12차시, 쓰기 12차시로 모두 24차시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주당 7차시의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1학년 교육과정을 감안 할 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문자 해득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2) <Justine mes amis>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기초문식성이란 초기 읽기와 초기 쓰기의 수준을 말하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기초적인 능력’이란 한글 해득과 글씨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초적인 의미구성’까지를 말하는 것이다¹⁵⁾ 기초 문식성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프랑스 Belin 출판사의 <Justine mes amis>의 내용은 모국어 문법을 기초로 하여 낱말, 어휘, 음소, 말하기 쓰기 표현, 작문으로 구성되어 교과서 전체가 기초 문식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초등학교 시간표의 운영을 참고하면, 언어의 숙달과 관련되어 편성되는 시간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다른 교과에도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는 언어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별 내용요소에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는 언어활동이 통합되어 학습되고 있으며 각 교과별 텍스트 또한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교재로 구성하고 있어 모국어 교육이 한 교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15) 이경화(2006),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문식성 지도 실태와 인식조사>,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교과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¹⁶⁾

<표Ⅲ-6> 프랑스의 초등학교 시간표(주26시간)

분야	본 학습 주기	
	최소 시간	최대 시간
언어와 불어의 숙달	9시간	10시간
함께 생활하기	30분	30분
	(주간 토론)	(주간토론)
수학	5시간	5시간 30분
세상 발견하기	3시간	3시간 30분
외국어 또는 지역어	1시간	2시간
예능교육	3시간	3시간
체육과 스포츠 교육	3시간	3시간
매일의 활동(*)		
읽고 쓰기 (작문 또는 과제)	2시간 30분	
(*): 읽고 쓰기라는 매일의 활동은 여러 학과 분야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그 활동에 할애된 시간은 여러 학과 분야별로 할당된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나.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전개 양상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은 다른 학습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 본 두 나라의 단원 전개 방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원을 넘어, 교과서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입문기 학습자들의 흥미와 체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지도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 단원 내에서도 단어식, 음절식으로, 또는 자모식, 음절식, 문장식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읽기』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첫 차시는 그림을 보고 선생님

16) 이부련(2000),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함께여는 국어교육 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을 따라 낱말을 읽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족 관련 낱말을 읽어보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연속차시는 ‘바른 자세로 글을 읽어봅시다.’라는 차시 목표에 따라 짧은 시 형태의 읽기 자료가 제시 되어 있다. 4차시는 소리 내어 읽기로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동물 삽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단어식으로 낱말을 학습 한 후, 5차시에서는 동 음절 낱말 학습이 이루어진다. 퍼즐 및 노래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단원의 마지막인 6차시에서는 문장 단위의 글을 바탕으로 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2단원은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단원 학습 목표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글자의 짜임과 관련된 내용이 6차시에 걸쳐 이루어진다. 받침이 없는 글자를 퍼즐 모양, 붙임 딱지 등을 이용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보는 활동을 먼저 한 후,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흥미 있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으나,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나누어 볼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의미 밖에 없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보는 차시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학습하기 전에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이 적힌 기본 음절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학습의 계열에 혼란을 주고 있다. 낱말식에서 문장식, 글자의 짜임과 관련한 음소식 학습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음절에 대한 충분한 학습 없이 생소한 낱자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절표는 문자의 자모 결합의 원리를 알게 하여 문자를 익히도록 하는 발음중심 교수 방법의 대표적인 교수 자료 중의 하나이나 기초 문식성 초입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 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쉽다.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학습은 한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단모음자와 14개의 단자 음자를 한 차시에 모두 익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무리한 학습 분량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음자를 익히는 방식으로 제시 된 자음자 찾기 놀이

는, 흥미 있는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음을 익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음 차시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바탕으로 한 음절식 학습이 이어진다. 삶과 관련된 짧은 글을 제시하여 실제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적어보는 단계까지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3단원은 문장 부호에 알맞게 글을 띄어 읽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편지, 시, 이야기 등의 텍스트 속에서 문장부호를 이해하고 알맞게 글을 띄어 읽는 기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학습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반영도도 높이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읽기』 교과서의 내용 중 문자 해득과 관련한 1, 2단원의 전개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7> 문자 해득을 위한 『읽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단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기초 문식성 지도 방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배우는 기쁨	낱말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1	·그림을 보고 낱말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3	·그림을 보고, 바른 자세로 글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4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5	·같은 글자가 들어 있는 낱말 찾기 ·같은 글자가 들어 있는 노랫말 읽기	음절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6	·시 ‘비오는 날’ 재미있게 읽기/소리 내어 읽기/ 시에 나오는 낱말 읽기	문장식,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표Ⅲ-7> 계속

2. 이렇게 생각해요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1	·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 알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한글의 자모 이용하여 글자(낱말) 만들어 소리 내어 읽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	·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 알기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4~5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기 · 받침이 있는 낱말 만들어 소리 내어 읽기	음절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6	· 글자의 짜임 생각하며 글 읽기 · 글에 나오는 낱말을 음절로 나누어 글자의 짜임 알아보기	문장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표Ⅲ-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읽기』 교과서는 단어식 학습법이 시작과 중심이 되어 음절식, 자모식, 문장식 학습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음 중심 지도 방법과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을 절충한 균형적 지도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문학 작품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낱말과 노랫말을 사용하고 놀이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음으로 『쓰기』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글쓰기 태도와 관련하여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와,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이 두 차시에 걸쳐 제시되어 글을 처음 배우는 입문기 단계에 선행되어야 할 태도 요소를 충분히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태도 학습 후에는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단어식 학습법에 의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보고 낱말 전체를 쓰도록 하고 있다. 다음 차시에서는 보기 없이 그림에 맞는 낱말을 써 보는 활동 및 각 음절을 합쳐 낱말을 써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써보는 활동이 각 각 한 차시씩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읽기』에서 한 차시 동안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에 부담을 주었던 부분을 떠올린다면, 『쓰기』와 『읽기』를 통합하여 자음자와 모음자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읽기』 교과서에서 살펴보았던 자음자와 모음자가 합쳐져 낱자와 낱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쓰기』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에도 6쪽에 걸쳐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이후 그림에 알맞은 낱말 쓰기, 틀린 낱말 바르게 고치기, 낱말 받아쓰기, 문장 받아쓰기 학습이 3단원까지 이루어진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낱말은 학교, 교실, 숲, 문구점, 채소가게, 과일가게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낱말을 문자로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몇 시간은 낱말을 읽기만 하고 몇 시간은 낱말을 쓰기만 하며 분리된 학습을 전개하기 보다는, 같은 낱말을 읽고 동시에 써보며 글자를 익힐 때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4단원은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중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글로 나타내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일기로 쓸 수 있다.’는 단원 학습 목표에 따라 ‘그림일기의 형식 알기’, ‘그림일기를 잘 쓰는 방법 알기’의 이해학습 2차시, ‘내가 겪은 일을 그림 일기로 써보기’의 적용학습 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써보는 단원에서, 글쓰기의 형식을 강조한 이해학습이 두 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2~3문장으로 구성된 일기를 써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기 쓰기는 생활 경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글쓰기이다. 그러나 문장 쓰기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형식을 갖춘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상황부터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문장의 수를 확대해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쓰기』 교과서의 내용 중 문자 해득과 관련한 1, 2, 3단원의 전개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8> 문자 해득을 위한 『쓰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단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기초 문식성 지도 방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배우는 기쁨	바른 자세로 앉아 글씨를 쓸 수 있다.	1	· 글씨를 쓸 때 바르게 앉아 보기 · 바르게 앉아 자기 이름, 친구 이름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	· 연필 바르게 잡기 ·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바른 자세로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3~4	· 바르게 앉아 낱말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 이렇게 생각해요	순서에 맞게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다.	1	· 자음자 바르게 쓰기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낱말에 알맞은 글자 찾기 · 모음자 바르게 쓰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4	·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 쓰기 · 낱말에서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 마음을 나누며	글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1	· 글자를 바르게 써야 하는 까닭 알기 · 낱말에서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낱말 받아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4	· 글자를 쓸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경우 알아보기 · 문장에서 틀린 낱말 바르게 고쳐 쓰기	단어식 문장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표Ⅲ-8>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쓰기』 교과서 역시 단어식 학습법이 시작과 중심이 되어 음절식, 자모식, 문장식 학습법이 다양하게 적용하는 균형적 지도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낱말 쓰기’,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계속되어 자칫하며 학습이 지루해지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쓰기』 2, 3단원에서는 단원 내에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2단원에서는 새롭이, 3단원에서는 다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단원 내내 새롭이와 다람이의 상황 맥락 안에서 문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습의 실제성을 높이게 된다.

이상으로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한국 교과서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입문기 기초 문식성 단계임을 고려하여 글쓰기의 바른 자세와 관련하여 태도부분을 먼저 학습하도록 교과서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둘째,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낱말과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에 친밀감을 높이고 있으며 균형적 지도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식 지도법이 중심이 되고 자모식, 음절식 등의 발음 중심 지도법은 몇 차시에 묶어 단 시간에 지나가다 보니 쉬운 글자에서 어려운 글자, 즉 받침이 없는 글자-받침이 있는 글자-이중 자·모음에 대한 단계적인 학습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자·모음은 기초 문식성 관련 단원 이후에 글을 읽거나 쓸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이에 대한 학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학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음자 모음자를 학습할 때 이중 자·모음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학습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어디에서도 안내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적 지도법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흥미 있는 학습 상황과 문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내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과 문학 작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결합하여 알맞은 낱말을 쓰기에는 교과서에 나타난 반복의 과정이 너무 적다. 문자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변별하고 이를 발음과 연관시키고 글자로 다시 적어나가기에는 새로운 단어가 너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문자가 채 습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어를 익혀야 하므로 학습자들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자 학습을 위한 충분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쓰기 학습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 문식성 교육이 반영 된 『읽기』와 『쓰기』 교과서의 분책으로 인하여 문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2) <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프랑스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의 주 교과서 내용과 워크북, 글자 익히기 교재의 구성은 같은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Ⅲ-9>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의 기초문식성 전개양상

구성	원리	구성 내용
1page	· 에피소드	· 프랑스의 문학작품을 읽기 매체로 활용 (삽화의 내용 알기, 읽기 자료 듣기)
2page	· 언어의 구조	· 코드, 문장과 낱말들에 대한 학습활동 (문법 유형에 따른 낱말의 분류, 글말의 기능에 대한 주의사항, 에피소드에 나오는 낱말을 이용하여 새 문장 만들어 말하기)
3page	· 어휘	· 보충 텍스트와 연습문제 (에피소드와 같은 주제로 다른 텍스트 제시, 같은 어휘를 다른 상황에 활용하기)
4page	· 문자, · 음성코드	· 음소, 문자소, 낱말, 문자들 (철자, 음소, 문자소, 낱말 알기, 낱말 결합하기)
5page	· 말하기와 쓰기 표현	· 작문, 읽기 매체에 대한 질문, 연습장 연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하기, 철자쓰기, 낱말 익히기를 위한 개별적인 연습장 활용)

프랑스 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교과서는 모국어의 문법을 기본

토대로 하여 교과서의 단원 구성 전체가 기초 문식성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 철자 익히기, 소리 내어 말하기, 듣기, 쓰기를 통합적, 반복적으로 교과서 내에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도 돋보인다.

1학년 어린이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문학 작품과 연계하여 에피소드(텍스트)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에피소드는 짧은 문장으로 단순하게 제시되며 각 소단원과 연관을 지으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또한,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 낱말을 익히고, 그 낱말을 다른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기초적인 쓰기와 읽기를 넘어서 생활에 활용하여 적용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문법과 다양한 활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모국어 교육에서 ‘기초문식성’교육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1학년 국어교과서의 읽기와 쓰기 교과서에서 한 달 정도의 시수를 배당하고 있었으며, 입문기 학습자들의 흥미와 체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지도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 단원 내에서도 단어식, 음절식으로, 또는 자모식, 음절식, 문장식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문자를 반복해서 익히기에는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나 시간 배분상으로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Justine mes amis>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발음, 철자법, 문장쓰기, 말하기 표현 등 기초문식성이 중심이 된 교과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쓰기와 말하기, 읽기를 중심으로 아동의 흥미에 맞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문식성’의 비중 및 전개방식은 각 나라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1학년 모국어 교육의 다른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교과서 분석 준거 마련을 위한 이론적 점검을 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II 장은 연구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먼저 1절에서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교과서가 실제 교수-학습에 활용되기 전에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 보았다. 2절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교과서 편찬 방식과 채택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자유발행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교육 전반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 및 채택, 활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교육목표를 분석해봄으로써 두 나라의 1학년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교과서는 사회적인 여러 요건 및 실제 수업 현장의 요구체, 실태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절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과 단원 전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제재 중심 구성 방식, 목표 중심 구성 방식, 문종(文種)중심 구성 방식, 주제 중심 구성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단원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단원 전개방식은 일반적으로 도입-전개-정리의 형식을 띄고 있었다. 4절에서는 기초문식성 교육의 개념과 초기 한글지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초 문식성은 단순한 문자해득과 글씨쓰기에서 더 나아가 '기초적인 의미 구성'까지 포함함을 알 수 있었다. 초기 문자 지도방법에는 발음 중심지도 방법과 의미 중심 지도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이 있으

며, 최근에는 절충식 지도법의 하나인 균형적 지도법이 대두되고 있다.

Ⅲ장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교과서를 분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언어 기능 및 영역이 통합된 주교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교과서인 워크북과 글자 익히기 교재를 함께 발행하고 있었다. 2절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단원 구성 체제에서는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전개 방식, 단원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단원 구성방식에서는 한국은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여 목표 중심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해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단원 전개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으며, 학습을 돕는 여러 학습 보조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 교과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텍스트들이 교과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의 구조, 어휘, 문자 코드, 말하기 쓰기 표현의 구조로 반복 활용 되고 있다. 3절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두 나라 모두 균형적 지도법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 교과서는 기초 문식성을 위한 학습 공간이 한 달 정도의 분량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프랑스Belin 출판사의<Justine mes amis , 쥐스틴과 친구들> 교과서는 보조 교과서인 워크북과 글자 익히기 교재를 통해 1년에 걸쳐 모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철자 익히기, 소리 구별하기, 낱말 익히기, 다른 상황에서 낱말 활용하기, 듣고 말하기 등 기초 문식성 교육이 1학년 교육내용의 전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1학년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의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발달특성이 ‘통합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자국어 교과서는 통합되어 개발되어야 더욱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과정이 주기별로 구성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성도 유치원과정과의 통합, 주기별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내용에서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내용이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마다 국어교과의 영역별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영역별 통합은 교과서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기초 문식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초 문식성 내용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비중을 더해 편성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에 교육내용은 시간과 내용에 있어 더욱 보강할 필요가 느껴진다. 글과 말이 아이들의 삶속에서 더욱 풍부해지도록 하는 기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요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프랑스의 교과서내용을 보면 자국의 문학작품을 교과서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자국어의 특성이 잘 드러난 문학작품을 교과서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은 자국어 교육에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어느 때보다 텍스트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이 교과서에서 더욱 좋은 질과 양을 담보할 때, 교과서의 내용도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교과서의 편찬, 발행제도는 점차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제 방식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는 보다 교육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프랑스와 한국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므로 인하여 단순히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그 우위를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언어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어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모임이나 학술 세미나 등에서 프랑스 교육제도가 시사하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프랑스 교육제도와 모국어 교육, 그리고

더 여러 교과서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53호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II(200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200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과서 『듣기·말하기 1-1』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과서 『읽기 1-1』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과서 『쓰기 1-1』
Belin (2004), 『*Justine mes amis*』

<단행본>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2), 《교육학 대사전》, 교육서관
노명완·이차숙(2006), 《문식성 연구》, 박이정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4), 《외국의 국어교육과정 I,II》, 나라말 출판사.
이경화·이수진·이창근·전제웅(2008), 《기초 문식성 지도 방안》, 박이정.
최미숙 외(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현섭 외(2008),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 교수학습 연구소 편(2006),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함수곤(2000),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논문 및 학술지>

김영미(2007).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영(2004),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 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완 외(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박도순 외(2001),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신은주(2007),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문학 단원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화(2006),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문식성 지도 실태와 인식조사”,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이경화(2006), “균형적 기초 문식성 교육내용 연구”, <국어교육>120호, 한국어교육학회.
- 이경화(2006),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단원 구성과 전개 방식 탐색”, 국어교육학회 제34회 학술발표대회자료집.
- 이두석(200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문식성 지도 실태 및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부련(2000),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함께여는 국어교육 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이용숙(1997), “국어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와 내용구성 방식 국제 비교연구”, <比較教育研究>11집
- 이용숙(2005),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 구성 체계 비교 분석”
- 이주섭(2006), “외국 초등국어과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천희(2007), “읽과 언어의 상호작용과 글 깨치기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정영선(2005), “한·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조난심(2004),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04-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한숙희(2006), “입문기 기초문식성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참고 사이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http://www.ktrf.re.kr>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Vernacular Textbooks of Korean and French Elementary Schools

Koh, Eu Sook

Major in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Joo Seop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ce in analyzing and searching out the points of issue for the elementary 1st grade vernacular text books of Korea and France by comparing the methods of composition and development centered on the structure of the chapters.

For this, understanding and comparing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system as well as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the text books, the systemic factors influenc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apters and development of the text books, should be foremost. Along with a systemic comprehension, a composition formation of vernacular text books showing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s planned to be studied before comparing the chapter composition systems.

In comparing the chapter composition systems, how well the function of text

books and requirements of the vernacular text books are reflected will be specifically studied as well as basic chapter composition and development methods by chapter composition factors. Moreover, basic literacy education is considered as the evidence for comparison analysis among the many evidences available for comparison.

Comparison objectives were studied limited to 1st grade Korean text book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published by the New Curriculum and < Justine mes amis > text book of France's Belin Publishing while literary studies based on comparison analysis study were processed.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analysis the 1st grade vernacular text books of Korea and France based on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linguistic-cultural environments, it was possible to obtain the following issue point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textbooks in Korea.

First, when founded on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al specialties of elementary 1st graders have 'integration' as their basis, integrating and developing vernacular textbooks are more desirable. In the case of France, the curriculum is composed on a term basis while even the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is directed toward integration with kindergarten courses and by terms while it was also seen that the contents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re integrated and utilized in actual education courses.

In reality, the necessity of integration by areas in Korean textbooks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during every revision period of the Curriculum. Integration by area includes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continue on to the integration of textbooks.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1st elementary grade vernacular text books should be developed toward the direction of expanding basic literacy more. In the revised Curriculum, the weight of basic literacy was added and composed in order to solve the insufficiency-suggested as the problem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However, the education contents in the curriculum seem to require more fortification with its time and content. It is because the foundation which allows writing and words to become more abundant in the lives of children are formed essentially during the elementary 1st grade.

Third, when looking at the contents of French textbooks, literary works of their own country are utilized as the basic texts of the textbooks. Utilizing literary works that reveal well the specialties of their own language as the text of textbooks will be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vernacular edu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1st elementary grade of the revised curriculum put a greater deal of effort in selecting texts than other times. When literary works assure better quality and quantity in textbooks, the contents of textbook are expected to develop.

Fourth, the composition and publication system of textbook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to a government-authorized and freely-issued system. The government-issue system with a government monopoly has been pointed out to have more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Textbooks with diverse methods and views will be the basis that allows a greater proliferation of the curriculum.

Key Word: Vernacular Textbook, Vernacular, Comparison, Korea, France, Integration, Chapter Composition, Basic Literacy, Composition and Publication of Textbooks